

하느님이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법

이냐시오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내부(내적 움직임)와 외부(일상의 사건들) 모두에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주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냐시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많은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물론 이냐시오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냐시오 로올라는 아마도 16세기의 인물 가운데 미디어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회원, 은인, 교회의 책임자, 친구,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는데, 그가 쓴 편지는 당대의 어떠한 저명인사보다도 많았다. 이냐시오는 머나먼 선교지에 있는 예수회원들에게도 월례 보고서를 쓰도록 했고, 처음으로 로마에 인쇄기를 설치했다. 그는 또한 연극을 좋아해서, 예수회원들에게 대중 설교를 위한 공연 예술을 숙달하라고 종용했다. 그는 탁월한 기금 조성자이며 노련한 홍보 전문가였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도 그러하셨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오직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닮고자 했다. 이냐시오 영성은 하느님

을 “미디어 하느님”으로 인식한다. 하느님은 항상 현존하시며,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심정이나 정감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은 대개 조용하며, 종종 우회적이다.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냐시오는 우리 마음의 귀가 하느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기법을 발전시켰다.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과 대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의 모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때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우리 편에서 말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천천히 그리고 크게 말한다. 하느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까 두려워한다. 이냐시오는 이제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그만두고 대신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이 점을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강조한다. 「원리와 기초」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랑의 응답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이냐시오는 “이 세상 만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위성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하느님은 이 모든 채널로 방송을 내보내고 계신다.

영성 생활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다른 방법들은 그 많은 채널 가운데 한두 가지에 집중한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특별한 신심 행위, 단식이나 다른 여하한 극기 훈련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으라고 강조한다. 많은 영성들이 고독과 침묵 안에서, 특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냐시오 영성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찾는다. 그것은 칙칙한 흑백 무성 영화와 완벽한 음향

을 갖춘 충천연색 영화의 차이와 같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사람이 되신 강생 사건, 이것이 바로 이냐시오 영성이 강조하는 “미디어 사건”이다. 이냐시오 영성이 미디어 하느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현존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강생은 추상적인 신학적 용어이다. 이냐시오는 이 강생을 우리 마음 안에서 생생히 느끼려면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한다. 영신수련의 제2주간에서 이냐시오는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성삼위 곁에 머무르라고 한다. “성삼위와 함께 세상을 내려다본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고 죽는다 ... 늙은이와 젊은이,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 행복한 이와 불행한 이 ...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 없이, 절망하고, 증오하고, 죽인다 ...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 발버둥치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사람들이 웃고 우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들은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저주를 한다.” 이 고통받는 세상의 광경과 소리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킨다.

이제 장면은 나자렛으로 옮겨간다. 한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라는 초대 را 받는다. 그 장면에 온전히 들어가서 마리아의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고,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려 주는 얼굴과 눈, 몸짓과 동작을 바라

본다. 우리도 하느님처럼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제 하느님이 행동하신다.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하신다. 구원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 삶의 난장판 속으로, 가장 불공평하고 잔인하며 죽음까지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그곳으로 친히 들어오신다.

하느님은 부재하신 분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까닭에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느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다. 바오로 사도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한다. 예수님은 필립보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관상 기도로 들어가 복음 속의 예수님을 주의 깊게 알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해하려 애쓰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고요히 성찰하며 인내로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언제나 현존하시는 미디어 하느님의 음성 을 알아듣는 길이다.